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양가성 고찰

- 민주적 정당성을 위한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중심으로 -

정 병 화*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양가성의 고찰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대안적 방식을 시사한다. 특히 생활세계에 대한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이 보여주는 불충분성 내지 과도함은 실제 정치의 영역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본고는 실존철학적 입장이 전제하는 참여자적 시점에서 생활세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이 어떠한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하고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 요소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 지를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애매성, 상호주관성, 연대, 민주적 정당성, 실존철학

* 고려대학교

1. 서론

현대를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 차원에서의 분석적·해석적 지평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 - 혹은 관습(convention) - 라는 구조적 요인과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는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구조적 변동의 결과물 - 다양한 윤리적 입장의 존재 - 을 정치공동체에 표면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시 말해서 현대 정치사회를 상징하는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political fact)은 정확히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구조적 변동의 최종적 결과물을 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가 형식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는 규범 재생산과 관련된 정치의 영역을 기술적이고 도구적이며 전략적인 영역으로 전환시켰다.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원래가 특정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입장의 평화로운 상호공존 즉 다원주의 그 자체를 위한 사회적 기본 구조에 대한 탐구 즉 공정한 자원의 재분배만을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는 가치의 문제와 긴밀히 결부된 정치의 영역을 가치의 문제와 분리시킨 채로, 이익 상황에 민감하고 맥락적 가치에 종속된 개인 혹은 집단들의 전략적 상호관계로 전환시켰다.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적 맥락에서 규범의 정당성 문제는 독백적 시민의 산술적 조합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헤게모니화가 유발시킨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에 토대하여 정치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시키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왜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하는가? 왜 인간은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구조적 요인이라면 정치란 바로 이러한 구조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action)와 관련

된 고차원적 능력을 지시한다. 구조에 매몰된 기술적인 인간이 아닌 구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반응하는 인간 모습의 제도화가 바로 정치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와 반성의 조합으로서 지시되는 정치는 정당한 규범의 재생산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렇다면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정당한 규범의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기술적이지도, 도구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않은 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정당한 규범 재생산을 위한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의 확립에 있다. 하지만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정당한 규범 재생산을 위한 물질 토대로서 지시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립은 간단치 않다.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제시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확립은 성공지향적 행위가 지배하고 있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상호이해 영역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이 아니라, 상호이해 영역에 대한 접근이 이론적 이성¹⁾에 근거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 요소로서 주어지는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에 근거해야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버마스(J. Habermas) 담론윤리학은 이러한 요구에 정확히 부합(符合)된다.

하지만 본 논문의 실존철학(existential philosophy)적 입장¹⁾에서 볼 때,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서 보여주는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 즉 생활세계(life-world)에 대한 분석은 과도할 뿐만

1) 본 논문은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의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에 대해서 비판적 재구성을 기획한다. 실존철학적 입장이란 실존(being in the world)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것처럼 생활세계에 대한 참여자적 시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두 가지의 고려 사항과 연결된다. 첫째, 인간은 원래가 상호주관적인 존재라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가 자유와 필연의 변증법적 운동 속에 자리매김한다는 점이다. 둘째, 변증법적 운동의 매개(mediation)로서의 구조적 권력 개념이다. 자유와 필연의 변증법적 운동의 매개로서의 구조적 권력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의 타자(the Other) 생성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특히, 매개로서의 구조적 권력은 푸코(M. Foucault)의 권력 개념에 근거해 있다.

이 아니라, 이러한 과도함으로 인하여 그의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 - 이상적 담론 상황 - 은 실제 정치의 영역을 왜곡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의 양가적(ambivalent) 측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은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를 타당하게 제시한다.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가 칸트(I. Kant)식의 강헌성(헌법에 근거한다면, 이는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각각의 특수한 입장에 근거하여 맥락적으로 재해석 내지 재구성될 것이다. 이에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은 실질적 요소로서 주어지는 상호성(reciprocity) 내지 연대(solidarity)로서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제시되는 하버마스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경험적이면서 선협적인 것’²⁾으로서 주어진다.

다른 한편,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을 담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은 부당하다. 물론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을 담론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의 재현체계로서 주어지는 담론개념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하지만 ‘탈-이데올로기적(extra-ideological)’³⁾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

2) 이 문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는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확실성에 관하여」에서 기술되는 펀더멘탈(the fundamental) 개념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비트겐슈타인의 펀더멘탈이란 경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의심이나 정당화가 필요 없는 그러한 영역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이면서 선협적인 요소란 “나에게는 두 손이 있다”와 같은 경험적 명제가 가지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다. 나에게 두 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해온 사실이면서 동시에,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는 되물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Wittgenstein 1969, 370-559).

3) 본 논문은 내용적 측면에서 토대주의에 근거하여 항상 진리와 같은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개념에서 담론 개념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주 13 참조), 형식적 측면에서 담론의 이데올로기성(the ideological)을 다룬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은 담론의 물적 토대인 정치공동체 구성

스의 담론 개념이 불충분한 혹은 과도한(excessive) 재구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버마스 이상적 담론상황의 타당성은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본 논문은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호이해 영역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서 제시하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타당함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가 가져야할 요건(要件)을 제시한다. 이를 본 논문은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무페(C. Mouffe)의 접근과 칸트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을 고찰함으로써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요건에 근거하여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이 지시하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적합한 지를 판명할 것이다.

둘째, 실존 철학적 입장에서 본 논문은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the reasonable condition)이 '직접성(directship)⁴⁾ - 담론적 차원의 배제 - 에 있음을 제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담론의 물적 토대인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 그 자체가

원의 경험적 삶이 가지는 형식적 의미 - 열린 구조와 반성적 체계 - 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대한 표상체계로서의 담론이 가지는 의미론적 서술 구조 즉 현실을 분류하고 정의내리는 방식 - 의미론적 이원론과 독백주의 - 과의 상관성 속에서 제시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 3장 1절에서 상술한다.

- 4) 이 직접성 개념은 선험적 현상학자인 훗설(E. Husserl)의 '현상학적 판단중지'에 대한 실존철학적 재정의화이다. 다시 말해서 훗설이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통하여 상호주관성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 이성의 맥락에서 즉 선험적 자아의 의식적 자기 동일성의 논리로 전개하였다면, 실존철학적 입장은 직접성이라는 조건을 통하여 상호주관성 문제를 실천이성적 맥락에서 즉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하여 재구성한다. 현상학적 판단중지든, 직접성이든 이 양 개념은 사회적 세계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으로 구체화된다. 롤즈(J. Rawls)의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롤즈의 무지의 베일이 상호무관심한 원자화된 개인을 결과한다는 점에서 위의 양자와는 다르다.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 담론개념이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임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하버마스의 담론개념에 토대한 이상적 담론상황이 부당한 의사소통 상황임을 판명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담론 개념에 입각한 의사소통 상황이 정치의 영역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 지를 고찰할 것이다.

2. 배타적이고 자연스러운 영역으로서의 상호이해 영역

1)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의 요건

본 절은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의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상호이해 영역에 대한 무페와 칸트의 접근법이 가지는 한계점을 고찰한다.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만일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가 초월적인 것(the transcendental)으로 주어지거나 선험적인 것(a priori)으로 주어진다면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심각한 한계 즉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위한 실천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지시할 것이다.

무페의 경합모델(agonistic model)은 이중적(twofold)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 무페의 경합모델은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정치관을 (강한 실질적 요소로서의)성공지향적 행위에서만 고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무페의 경합모델은 (최소한의)상호이해의 공간을 기술하고 있다.

무페의 경합모델의 이론적 토대인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구성 요소는 권력과 적대(power and antagonism)로서 제시된다. 한편으로 무페가

인급하는 권력이란 사회구성체가 가질 수 밖에 없는 모든 사회적 객관성 (social objectivity)의 최종 불가능성에 대한 근원적 부재(不在)의 일시적 고정화로서의 권력이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를 (선택된)다양한 담론들의 중층결정(over-determination)으로 제시하는 무폐의 입장에서 권력이란 곧 선택된 다양한 담론들이 물질화 혹은 제도화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을 의미한다. 이에 사회적 객관성이란 제도적 틀 속에서 부단히 작용하는 구조적 권력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결과물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권력 개념과 수직적 대칭점을 형성하는 또 다른 은유가 바로 적대⁵⁾이다. 권력이 근원적 부재의 일시적 고정화라면, 적대는 근원적 부재의 일시적 고정화가 산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객관성의 한계에 대한 경험이다. “적대는 부분적이고 불안정한 객관화로서 노정되는 모든 객관성의 한계들을 구성한다. 만일 언어가 차이의 체계라면, 적대는 차이의 파손(failure)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대는 언어의 한계 내에 위치하며, 언어의 분열로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언어와 사회는 그것들을 관통하는 불가능성에 대한 의식의 억압으로서 구성된다. 적대는 언어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벗어난다. 왜냐하면 언어는 적대가 전복하는 것을 고정시키려는 시도로서만 존재할 뿐이다”(Laclau & Mouffe 1985, 125).

이에 사회적 객관성의 한계로서의 적대는 무폐의 정치이론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시한다. 첫째, 사회적 객관성의 한계로서 주어지는 적대가 “차이체계로서의 언어에 대한 차이체계의 파손”이라는 무폐의 주장을 고

5) 포스트-구조주의 언어관에 근거한 무폐의 정치이론이 기본적으로 담론과 (담론 구성의 물적 토대인)외부 대상사이의 모든 구분과 상호연관의 자취들을 뿌리째 뽑아버렸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무폐의 적대 개념은 이론적 차원에서만 제시될 수 있는 논리적 귀결물이다. 이에 무폐의 정치이론에서 제시되는 적대 개념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의 부단한 작용 앞에 담론 구성의 물적 토대인 정치적 실재 그 자체의 의미가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적대가 형성되었는가.

려할 때, 적대는 다양한 담론들 간에 어떠한 동질성도 보장되지 않음을 지시한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입장들 간의 상호 관계가 갈등적이고 투쟁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무페의 적대 개념은 닫힌 구조와 비판성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성공지향적 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다.

둘째, 무페의 관점에서, 사회적 객관성의 한계로서 주어지는 적대는 특정한 사회구성체가 산출할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타자(natural Other)임과 동시에 정당한 타자(legitimate Other)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이에 정당한 타자로서의 적대는 그것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명령을 함축하고 있다. 셋째, 사회적 객관성의 한계로서의 적대, 즉 정당한 타자로서의 적대는 새로운 접합(接合)적 실천을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된 적대의 세 가지 의미에 근거하여 제시되는 것이 무페의 경합모델이다. 특히 적대의 두 번째 의미는 무페의 경합모델의 지향점이 어떠한 궁극적인 통일적 기초에도 준거하지 않는 다원적인 정치적 공간의 구성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일상적 담론 상황 즉, 근원적 부재의 일시적 고정화로서의 권력에 대한 수직적 대칭점으로서의 적대가 함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결과물은 적대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 - 정당한 타자로서의 적대 - 가 소거된 채로 단지 적대의 분열과 분산을 통한 권력과 적대의 전략적 수렴을 결과한다.⁶⁾ “어떤 경우든 민주주의적 적대는 민주주의 투쟁을 낳기 보다는 오히려 우파와 접합된다”(Mouffe 1988, 96).

이러한 일상적 담론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개념을 무페는 민주주의적 정치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정치는 갈등과 다양성이라는 맥락에서 산출되는 통일성을 지향한다. 이는 곧 각각의 입장이 가지는 특수성과 자율

6) 이에 무페는 일상적 담론상황에서 민주주의 투쟁을 위한 적대들의 연대를 주장한다 (Mouffe 1988, 98-99). 하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연대란 정확히 권력과 대항권력이라는 틀 속에서 지시되는 당파적 연대 내지 전략적 연대를 의미한다.

성에 이격(離隔)된 통일성이 아니라, 이것들을 존중하면서 산출될 수 있는 통일성일 것이다”(Mouffe 2000, 126). 이러한 민주주의 정치개념을 위한 일상적 담론상황에 대한 재구성화가 바로 민주주의적 담론에 의해 재구성된 담론상황이다. 민주주의적 담론에 의해 재구성된 담론상황이란 닫힌 구조와 비반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성공지향적 행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적대’를 최소한의 열린 구조와 반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경합(agonism)’ - 정당한 적 (legitimate enemy) - 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무페의 경합모형을 통해서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점은 무페의 경합모형이 적대에서 경합으로의 전환을 민주적 제 가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무페는 적대에서 경합으로의 전환이 가지는 타당성을 항상 “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라는 식으로 정당화한다. 하지만 성공지향적 행위만을 고려하는 무페의 경합모형에서 일상적 담론상황을 재구성하는 기제로서 혹은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기술되는 민주적 제 가치들이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를 고려할 때,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상호이해 영역에 대한 무페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공지향적 행위가 닫힌 구조와 비반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독백지향적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적 제 가치가 열린 구조와 반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상호 이해 지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공지향적 행위만을 고려하는 무페의 경합모형은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의)민주적 제 가치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적 제 가치를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초월적인 것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를 초월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무페의 접근이 이익 상황에 민감하고 맥락적 가치에 구속된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도덕적 실천력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무폐의 접근을 통해서, 필자는 성공지향적 행위만을 고려하는 어떠한 시도도 합당하게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할 수 없으며, 설혹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exclusive) 관계로서 주어지는 인간의 도덕적 토대에 근거해야함을 입증시킬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공동체 구성원이 (무폐의 경합모델이 지시하는)적대에서 경합으로의 전환을 합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폐의 경합모델을 읽는 독자가 독자 그 자신의 도덕적 토대에 입각하여 너무나 합당하게 무폐가 지시하는 민주적 제 가치를 수용 내지 수락하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무폐의 접근에서, 본 논문은 상호이해 영역 구성이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관계로서 주어지는 인간의 도덕적 토대에 근거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관계로서 주어지는 인간의 도덕적 토대에 근거하여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하는 칸트의 접근을 고찰함으로써, 본 논문은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위한 또 다른 요건을 제시한다.

상호이해 영역에 대한 칸트의 내적 토대는 개별적인 주체의 선의지이다. 이는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칸트의 접근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서의 도덕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상호이해 영역을 성공지향적 행위와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개별적인 주체의 도덕성 그 자체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칸트의 이원론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칸트는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위한 내적 토대로서의 개별적인 주체의 선의지를 강한 선형성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칸트는 이를 더 이상 정당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칸트가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보여준 것은 정언명법의 가능성으로부터

더 그 근거를 해명하는 작업을 통해 다만 자유의 이념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지계의 일원으로 이행하는 과정뿐이다. 이는 곧 개별적인 주체의 선의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당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최종 도달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시작되고 있는 저서가 「실천이성 비판」이다. 이 저서에서는 순수한 이성 즉 도덕적 이성이 어떻게 실천적일 수 있는지를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도덕적 동기와 목적으로 나아간다.

이에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과 맞물려, 더 이상 정당화가 불가능한 내적 토대에 근거하여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하는 칸트의 접근은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그것의 한계점을 분명히 한다.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이 무엇인가. 이익 상황에 민감하고 맥락적 가치 지향에 사로잡힌 개별적 주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를 강한 선험성에 근거지우는 칸트의 시도는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하는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위한 어떠한 도덕적 실천력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곧 우리가 왜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해야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칸트의 접근은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칸트의 접근은 개별적 주체가 개별적 주체의 특수한 자기 이해와 맥락적 가치 지향의 자기 구속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도덕적 실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칸트의 접근을 통해서, 필자는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가 성공지향적인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관계로서 주어지는 인간의 도덕적 토대가 실질적이어야 함을 제시한다.

2) 하버마스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

본 절에서는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하

는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하버마스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위에서 언급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판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명을 통해서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이 성공지향적 행위가 지배하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배타적인 영역(exclusive sphere)’일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영역(natural sphere)’임을 제시한다.

(강한 실질적 요소로서의)성공지향적 행위는 개별적인 행위자의 가치 지향과 관련된 개별 행위자의 판단과 숙고의 능력에 적용된다. 이에 성공지향적 행위는 자신의 가치 지향에 근거하여 인생의 목적과 이익이 어떻게 채택되고 수용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에게 어떻게 우선성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성공지향적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 지향에 근거하여 최종의 목적들을 저울질하고 전반적인 인생의 계획에 비추어 목적들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또한 이러한 목적들 상호간의 일관성과 상호보완성을 어떻게 잘 유지시킬 것인가를 놓고 최종의 목적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성공지향적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개별적인 행위자 자신의 가치 지향이나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행위자가 자신의 가치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Habermas 1984, 87-88). 요약하자면, 성공지향적 행위는 개별적인 행위자 자신의 가치나 목적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독백적이며, 자기반성이 없는 주체-객체의 관계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서 성공지향적 행위는 닫힌 구조와 비판성적인 체계를 특징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상호주체간의 대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단지 이 행위 범주는 행위자 자신의 틀 속에서 세계-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를 대상화(objectification)시킨다.

반면에, 하버마스는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점점 우

리의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행위의 한 영역인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의 복귀를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정당한 규범 산출을 위한 내적 토대로서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 제시한다. 하버마스에 있어 상호성으로서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일반적인 선(the general good)에 의하여 움직이는 이타적인 것(the altruistic)도 아니요,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되는 상호이익(mutual advantage)을 지향하는 개념도 아니다. 하버마스에 있어 상호성으로서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자기이해에 의존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체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덕적 연대(solidarity)를 의미한다.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이 서로에 대해 동등대우를 기대하고, 이 동등대우는 모든 인격체가 모든 다른 인격체를 ‘우리들 중의 한 사람’으로 대우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Habermas 1998, 29).

이러한 맥락에서 독백 지향적인 성공지향적 행위가 사적인 것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상호 인격 지향적인 하버마스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공적인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하버마스는 단일한 행위자(a single agent)에 적용되는 독백적이고 비판성적 체계를 특징하는 성공지향적 행위와 상호 인격 지향적이며 반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상호이해 지향적인 행위의 상호관계를 ‘상반적인 관계(counteracting relation)’로서 규정한다.⁷⁾ “사회행위에서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와 성공지향적 행위가 서로 구분될 때 비로소 두 현상 - 한편으로 일상 행위의 소통적 합리화라는 현상과 다른 한편으로 목적 합리적인 경제 행위와 행정행위를 위한 하부체계형성이라는 현상 - 이 서로 상보적

7) 성공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원론적 구도는 이론적 이성에 입각한 의식과 물질이라는 이원론적 도식과는 다르다. 성공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원론적 구도는 실천이성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논거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complementary) 발전으로 파악될 수 있게 된다. 이 두 현상은 합리성의 복합체가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반영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서로 상반된 경향이라는 것이다”(Habermas 1984, 341).

성공지향적 행위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상반적이라 함은 이 두 가지의 행위양식이 서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관계임을 의미한다. 이는 어느 하나의 행위 양식으로 다른 하나의 행위 양식을 유추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공지향적 행위에 근거하여 상호이해를 산출하려는 시도⁸⁾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으며,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어느 지점에 가서는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 그 자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하버마스는 사회화된 개인의 본질적 속성으로 제시한다. 물론 하버마스의 사회화에 대한 분석은 다분히 인간을 언어적인 삶에만 국한시킨 해석이지만, 하버마스에게 있어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특정한 공동체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도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치 않는 우리 모두의 행위 범주로서 주어진다. “상호주체적 관계의 외화(外化)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상호주체적 인정(recognition)의 관계 속에서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식의 구조적 손상 가능성’에 관한 지식은 우리의 의사소통적 생활형태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직관적 친숙성으로부터 나온다”(Habermas 1998, 30).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사회화는 개별적인 행위자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를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미있는 타자들’⁹⁾과의

8)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경우가 고티에(D. Gauthier)나 무페의 경합모델을 들 수 있다. 특히, 고티에는 “사회를 형성하는 도덕적 능력을 모든 합리적 인간이 맺어야 하는 사회 계약을 결정하는 능력과 동일시해도 좋다”(Gauthier 1986, 234)라고 주장한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마음은 결코 독백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대화의 과정에 의해서 생성된다. 또한 인간의 반성적 능력도 독백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의미있는 타자들의 타당성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증진된다. 이에 사회화된 개인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고립된 개별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이들 개별적인 행위자들이 함께 구성한 상호주관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호주관적인 관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동등한 권한을 가진 개별적인 행위자들로 인정됨으로써 나와 의미있는 타자들 간의 상호 관계가 전략적이거나 도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관계’임을 명확히 지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화된 개인에게 있어서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성공지향적 행위보다 논리적 ‘우선성(priority)’(Habermas 1996, 337)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본질적인 행위 양식으로 주어진다.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하는 내적 토대로서 제시되는 하버마스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앞서 언급된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의 조건들을 충족한다. 성공지향적 행위에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것으로서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 그리고 경험적이면서도 선형적인 것으로서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거가 언어적으로 매개된 의사소통에 국한하여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충분성¹⁰⁾을 산출하지만,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9) ‘의미있는 타자’ 개념은 미드(G. H. Mead)가 그의 책 「마음, 자아, 그리고 사회」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10) 사회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논거가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에 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사회화에 대한 논거가 가지는 한계점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무의식적으로 가하는 규범적 강제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향적 행위를 사회화된 개인의 본질적인 행위양식으로 규정하는 하버마스의 주장은 타당하다.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배타적인 관계로서, 그리고 경험적이면서 선택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를 내적 토대로 하여 구성되어지는 상호이해 영역이 성공지향적 행위가 지배하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어떤 형식적 특질을 가지는 지를 고찰해 보자.

첫째,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주어지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배타적 관계로서 제시됨은 성공지향적 행위가 지배하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상호이해 영역이 '배타적인 영역'임을 지시한다. “도덕적 판단의 추정적 공정성과 의무적 규범의 범주적 타당성 주장을 고려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상호주체적 관계를 규제하는 수평적 관점을 각자의 고유한 생활기획들의 수직적 관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진정으로 도덕적 물음에 대한 답변들을 분리시켜야 한다”(Habermas 1998, 28).

이러한 맥락에서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독립적인 혹은 배타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정치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선호들을 보완하고 이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적절히 균형 잡아주는 것으로서의 (도구적이면서 기술적)정치를 지향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

다.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는 사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을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견의 일치(the agreement of opinions)'라는 차원에서만 고려함으로써,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가하는 규범적 강제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에 메를로-퐁티는 사회화를 지각적이고 비자의 식적 차원에서 사회공동체 구성원과 세계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pre-reflective experience and anonymous-cultural encounter)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에 메를로-퐁티는 사회화를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신체성(intercorporeity)에 토대하여 제시한다 (Merleau-Ponty 1962, 353-358). 이로써 사회화에 대한 메를로-퐁티의 상호신체성 개념은 사회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증하는 물적 토대로서 제시될 뿐만이 아니라,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가하는 규범적 강제력을 타당하게 설명한다.

해 지향적 행위는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는 여러 정파들과 이익 상황에 민감하고 맥락적 가치에 구속된 정치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 교환 관계 - 을 지향하지 않는다.

둘째,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주어지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경험적이면서 선행적인 것으로서 제시됨은 성공지향적 행위가 지배하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상호이해 영역이 '자연스러운 영역'임을 지시한다. 이는 곧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이 선행적이거나 초월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당연하고 필연적인 영역으로서 주어짐을 의미한다. 이에 경험적이면서 선행적인 것으로서 주어지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문맥 초월적인 인간의 사고에 토대하여 주어지는 진리개념이나 추상적 도덕주의에 토대한 정치를 지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세계 앞의 최고 입법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지도 않는다. 이는 인간 스스로가 (외재적 혹은 내재적)도덕법칙을 인지하여, 동시에 스스로 이 도덕법칙에 따라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는 지금의 주권 개념에 대한 거부를 함축하고 있다.

셋째,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가 성공지향적 행위에 대해서 논리적 우선성을 가짐은 성공지향적 행위가 지배하는 정치공동체 내에서 상호이해 영역이 가지는 기능적 측면을 지시한다. 하버마스는 이를 상호이해 영역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으로서 제시한다. “상호이해 영역은 한편으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와 제도에 대해서 공명판(sounding board)으로서 민감한 센스를 가진 경고체계라는 점에서 소극적 기능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호이해 영역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와 제도에 대해서 효과적인 문제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행사한다”(Habermas 1996, 359).

이러한 상호이해 영역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기능을 통하여 산출되는

결과물 - 소통적 권력 - 은 직접적으로 정당한 규범 산출을 위한 토대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규범은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행정과 경제체계를 규제(regulation)함은 물론이요 사적 영역에서 있어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가치 지향에 제약(constraint)을 가한다.

3. 과도하고 부당한 하버마스 담론개념

1) 이상화된 생활세계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 담론개념이 실제 생활세계에 대한 (이상화된)생활세계로의 재구성 결과라는 점에서,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하는 하버마스 담론개념이 가지는 타당성은 실제 생활세계에 대한 (이상화된)생활세계로의 재구성이 가지는 타당성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이에 본 절은 먼저, 하버마스가 실제 생활세계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개념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과 의사소통 행위의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서 고찰하고, 다음으로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이러한 하버마스의 재구성이 과도한 재구성임을 입증할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은 마르크시즘(marxism)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하버마스는 계급대립이라는 개념의 방법론적·이론적 난점을 지적하고 그 극복의 가능성 내지 필연성을 역설하기 보다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대립이 순치되어 더 이상 명시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게 되었다는 역사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는 국가기구의 증대된 개입을 통해서 자본 축적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예봉(銳鋒)을 둔화시켰고, 복지정책을 확충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탈정치화시키는 물론,

계급화해를 이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갈등제거의 메커니즘을 정착시켰다”(Habermas 1987, 346-347).

이러한 마르크스즘에 기초한 이데올로기 개념, 그리고 이것에 토대한 이데올로기 몰락 테제에 근거하여, 하버마스는 목적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조종되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체계(system)와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에 기반을 둔 생활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이데올로기적 요인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설명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사소통 행위이론」에서 기술되는 핵심 문구들 - ‘일상적 의식의 파편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생활세계의 복귀’ 등 - 이 기술된다. “사용가치를 상실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등가물로서 나타난 것이 아마도 총체화된 형태의 일상적 의식이겠지만 이 일상적 의식은 불명료한 상태로 남아 있다. 적어도 표현적 수준에서 본다면 일상의 의식은 현대 문화의 척도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수준에조차 도달하지 못했다. 일상적 의식은 종합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파편화된다”(Habermas 1987, 355).

이러한 일상적 의식의 파편화가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테제로 이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이 아니라, ‘파편화된 의식’(fragmented consciousness)이며, 이는 물상화(物象化)의 메커니즘에 의하여 우리가 계몽되는 것을 방해한다. 바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적 가면(ideological veil)을 벗기면, 자율적 하위체계의 기능적 요건이 생활세계로 하여금 체계의 논리에 동화(同化)되도록 강요하는데, 이는 마치 식민지 침략국이 전통사회에 침투하는 것과 같다. 지역문화의 소박한 시각은 수도권과 세계시장의 기능에 순조롭게 적응되기에는 너무 허약하다”(Habermas 1987, 355).

이에 이데올로기적 요인 없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와 체계의 상호 작

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버마스의 비판적 소망 - 생활세계 복귀 테제 - 은 다음과 같다. “체계와 생활세계 개념으로 재 정식화된 후기 자본주의의 물상화에 대한 이론은 계급의식이라는 뒤떨어진 이론을 대치(代置)하는 문화적 현대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 비판에 몰두하는 대신에 문화적 빈곤화와 일상적 의식의 파편화를 해명하여야 한다. 혁명의식의 흩어진 자국을 뒤쫓는 대신에 합리화된 문화와 살아 있는 전승에 의존하는 일상적 의사소통과의 재결합의 조건들을 추구해야 한다”(Habermas 1987, 355-356).

이러한 맥락에서 종합화하는 능력을 상실한 일상적 의식의 파편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처방은 의사소통 행위 참여자들에 대한 해석의 원천으로서의 생활세계로 재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이제 문화적 전승의 형태로 재생산되는 언어학적으로 조직화된 배경전제들의 저장물로서 제시된다. 이로써 문화적으로 전승된 배경적 앎으로서 주어지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객관적·사회적·주관적 세계 사이의 연관을 내용적으로 해석하면서 존재하게끔 해준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주어진 상황의 지평을 넘어간다고 해도 그들은 허공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막 현실화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석되어 있는 문화적 자명성의 영역에서 다시 등장한다.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도 이미 익숙해 있는 문화적 앎의 저장물로 건설된 하나의 생활세계로부터 출현한다”(Habermas 1987, 124-126).

이에 문화적으로 전달되고 언어학적으로 조직화된 해석적 유형의 축적으로서 주어지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에 대해서 초월적 지위-근본적인 술어-로서 제시된다. 이러한 초월적 지위로서의 생활세계에 토대한 의사소통의 행위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음의 기능적 필요성

에 상응(相應)한다(Habermas 1987, 126-135). 첫째, 의사소통 행위를 통한 이해의 도달은 문화적 지식을 전달하고, 보전하고, 쇄신한다. 둘째,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통합과 집단 연대성을 위한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셋째, 행위자들을 사회화하는 의사소통행위는 개인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세 가지의 구성요소 - 문화, 사회, 개인 - 는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측면 - 이해의 도달, 통합의 조정, 사회화에 대한 효과 - 을 통해 사회에 상응하는 필요성 -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형성 - 을 충족시킨다.

이상의 두 가지 분석 - 이데올로기 개념과 생활세계가 가지는 위상 - 을 통해서 하버마스 생활세계 개념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가 없는)이상화된 생활세계는 동질적이다. 초월적 지위로서 주어지는 하버마스의 생활세계는 다양한 윤리적 입장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근본적인 술어로서 제시된다. 둘째, (이데올로기가 없는)이상화된 생활세계는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셋째, (이데올로기가 없는)생활세계는 의사소통(합의)을 촉진시킨다. 이데올로기가 없는 동질적 총체성으로 재구성된 생활세계는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입장들 간의 의사소통(합의)을 촉진시킨다.

특히,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분석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본 논문의 입장과 크게 다르다.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적 접근이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다면, 본 논문이 가하는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두 번째 특징에 있다. 필자가 볼 때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의 결정적인 한계점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한계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결국 생활세계의 첫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과 연결된다. 따라서 아래의 첫 번째 논의는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라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기획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 담론개념이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임을 입증

할 것이다.

첫째, 일상적 차원에서 담론 생성에 대한 분석은 담론 그 자체의 이데올로기성을 분명히 한다. 이는 담론이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라는 물질 토대를 전략적 차원에서 재구성한 결과물인지 아닌 지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에서 지시하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성은 구조적 권력¹¹⁾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략적 차원에 의해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의 형식적 특징 - 열린 구조와 반성적 체계 - 이 담론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와 관련된다.

이를 본 논문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가지는 통시적 차원(diachronic dimension)의 의미와 공시적 차원(synchronic dimension)의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고찰한다. 다원주의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정당한 규범을 산출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민주적 정당성 테제는 진리 개념이나 추상적 도덕주의를 지향하는 교조주의적 정치나 우연성에 토대한 기회주의적 정치를 배척한다. 이에 민주적 정당성 테제는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하여 정치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합당하게 수용되고 수락될 수 있는 특정 관점의 형성과 이러한 특정한 관점에 의해서 특정 대상을 구성하는 구성주의적 정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시적 차원에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애매성’¹²⁾(ambiguity)으로 제시함은 (새로운

11) 여기서 언급되는 구조적 권력이란 포스트-정치이론에서 언급하는 구조적 권력 개념과는 다르다. 포스트-정치이론의 구조적 권력 개념이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를 구조적 선택성과 배제성이라는 틀 속에서 해석된 결과물인데 반하여,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구조적 권력 개념은 애매성에 토대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제도화되면서 그것의 애매성이 탈화된 채로 참의 모습을 띠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권력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하고 있다.

12) 메를로-퐁티는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통시적 의미인 애매성을 자유(정신)와 필연(물질)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기술한다. “인간은 역사적인 이데아이다. (애매성에 근거한)인간의 존재는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변경을 요구한다. 한편으로 인간은 행위의 진행을 통해서 우연성을 필연성으로 변형시키는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존재는 실제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 일종의 도피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변형시키는 존재이다. 물론 이 도피가 무조건적인 자유인 것

미래를 열면서 새로운 차원과 의미를 창출하는 인간의 실천적 능력에 토대한 민주적 정당성 체계가 요구하는 조화로서의 정치(학) 개념에 정확히 부합(符合)된다.

공시적 차원에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적 지속성’(durability)과 관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시적 차원에서의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는 그것이 가지는 통시적 차원의 의미인 애매성이 탈화(脫化)된 채로 ‘과잉결정(excessive determination)’된다. 다시 말해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공시적 차원에서 물질화 즉 제도화됨으로써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는 공시적 차원에서 참 혹은 진리 인양 제시된다. 이러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과 제도적 틀 속에서 작동하는 과잉결정 메커니즘¹³⁾이 가치 영역의 동질성 내지 중립성이 담보된 사회공동체를 가치 영역의 다양성이 담보된 정치공동체로 전환시킨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을 통해서 산출되는 사회공동체의 첫 번째 배출물이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다.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통시적 의미인 애매성과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공시적 의미인 과잉결정 간에 형성된 긴장(tension)의 산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통시적 의미인 애매성의 ‘직접적인 한계적 경험(a direct and critical experience)’으로서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란 경험의 지속성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경험의 놀라움과 당황스러운 측면을 가리킨다. 이에 정치공동

은 아니다”(Merleau-Ponty 1962, 170-171).

13) 과잉결정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푸코의 논의는 탁월하다. 푸코는 그의 책 「담론의 질서」에서 이를 ‘진과 위의 대비(the opposition of truth and false)’, ‘금지(prohibition)’, 그리고 ‘분할과 배척(division and rejection)’으로 기술하고 있다(Foucault 1971, 16-23). 특히 진과 위의 대비는 과잉결정 메커니즘이 지식의 형태로 제시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함의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한 반성적 자료로서 자리매김한다.

특히,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한계적 경험으로서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이성적 능력과 관련된 특정 관점 혹은 입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직접적인 한계적 경험으로서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지각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개별성(individuality)을 의미할 뿐이다. 이에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특정한 관점 내지 입장이 닫힌 구조와 비판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면,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각적 차원에서 제시되는 개별성은 지각적 차원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애매성에 근거함으로써 열린 구조와 반성적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지시하는 개별성은 ‘공유된 언어체계의 연약한 파손(weak failure)’으로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별성들 간의 소통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¹⁴⁾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이 산출하는 사회공동체의 두 번째 배출물이 (이데올로기적)담론이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은 애매성의 직접적인 한계적 경험으로서 주어지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을 산출할 뿐만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이를 분산, 해체, 재구성을 한다. 이러한 과잉결정 메커니즘의 전략적 행위는 개별적인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결과하는 효과(effect)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

14) 영(I. M. Young)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대화 지향적이고 이해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의 공평무사한 집단적 사회적 지혜(collective social wisdom)를 구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Young 1996, 131-133).

힘적 삶들 간에 형성될 수 있는 소통 가능성을 파편화시키는데 그것의 주된 목적이 있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결과한 ‘파편화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결국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a fragmented strategic-position)’¹⁵⁾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해서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이란 파편화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한 결과물인 것이다. 이에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의 ‘연약한 의미(soft meaning)’ - 열린 구조와 반성적 체계 - 는 이제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의 ‘경직된 의미(hard meaning)’ - 닫힌 구조와 비반성적 체계 - 로 전환된다. 여기서 우리는 소통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우리의 정치적·윤리적 삶이 어떻게 소통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으로 전환되는지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윤리적 삶의 근본적인 실존적 양태가 무엇인지도 인식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원래가 상호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은 담론이 왜 이데올로기적일 수 밖에 없

15)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은 첫째, 내용적 측면에서 토대주의에 근거하여 진리와 같은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개념 - 특히 마르크시즘적 이데올로기 개념 - 에서 담론 개념으로의 전환이 가지는 타당성을 설명한다.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이라는 맥락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의 토대주의는 특정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의 선형적 특권화로 해석된다. 둘째,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은 현대 정치사회의 특징인 다원주의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적 도구이다. 다원주의에 대한 하버마스의 (소통 가능성을 전제로 한) ‘파편화된 입장’이나 포스트-정치이론의 (소통 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입장’은 일면적 타당성만을 지닐 뿐이다. 하버마스는 파편화에 주목했지만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가지는 과잉결정 메커니즘을 그의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에 하버마스는 파편화에 대한 실질적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포스트-정치이론은 구조적 권력에 주목했지만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포스트-정치이론은 전략적 입장 형성에 대한 실질적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분산, 해체, 재구성)에 의해서 결과하는 파편화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토대한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은 다원주의에 대한 포스트-정치이론의 주장 즉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적 의미에서의 다원주의를 비판한다.

는가를 명확히 한다. (담론의 주제 선택과 관계되는)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하여 문화적·역사적 컨텍스트(context) 속에서 형성되는 담론은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진리의 효과(truth-effect)’를 산출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담론은 진리의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의미론적 이원론과 독백주의를 그것의 형식적 특징으로 한다.¹⁶⁾ 완전한 진리이자 완전한 현실임을 자처하는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한 담론 역시 세계를 선과 악, 친구와 적, 진리와 허위로 구분하는 의미론적 이원론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론 그 자체가 대상 자체에 내재하는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러한 담론의 동일화 전략이 결국 어떠한 반대도 참지 못하는 독백을 산출한다. 따라서 형식적 측면에서 담론은 소통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대한 왜곡된 표상으로서 제시된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이 결과하는 두 가지 요소 -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과 (이데올로기적)담론 - 는 어떠한 사회공동체라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수(a political constant)’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과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한 (이데올로기적)담론은 모든 사회공동체가 산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과물이다. 또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 애매성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는 끊임없는 재생산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산의 운동 속에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과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자연스러운 타자(the natural Other)’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그

16) 담론이 가지는 의미론적 이원론과 독백주의에 대해서, 지마(P. V. Zima)는 텍스트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Zima 1996, 436-475).

러나 본 논문의 맥락 상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한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분명 부당한 타자(the unreasonable Other)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하버마스가 일상적 의식이 분할된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버마스는 일상적 의식의 분할에 대한 논거를 단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계급투쟁의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점에만 둬으로써, 하버마스는 일상적 의식의 분할이 전형적인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생성과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대체물로서의)일상적 의식의 분할은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이 사회공동체를 어떻게 정치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지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된 생활세계에 대한 첫 번째와 세 번째 특징과 관련하여, 하버마스의 (이상화된)생활세계 개념은 의사소통 행위의 지평으로서 의사소통 행위자 모두에게 그것이 가지는 배경 언어의 동질성은 자명하게 주어진다. 하지만 배경 언어의 동질성이 의사소통 행위자들의 의사소통(합의)을 촉진시킬 정도로 의사소통 행위자 모두에게 배경 언어의 동질성이 자명하게 받아들여지는가? 다시 말해서 하버마스의 (이상화된)생활세계는 개인에게 도덕적 행위를 위한 동기 부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가.

일상적 차원에서 개인들이 가지는 내적 동기가 인식론적이고 선형적인 도덕적 관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물음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상화된)생활세계 개념은 명확한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 하버마스는 그의 후기 저서인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무엇을 행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앎이 다른 구체적인 동기보다 더 강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나아가 의사소통 생활양식은 특수한 역사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가치지향을 넘어서 보편타당성을

요구하는 형식적으로만 대칭적인 상호 인정관계로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Habermas 1996, 113).

2) 이상적 담론상황의 부당함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의 담론개념에 토대한 의사소통 상황이 바로 하버마스가 제시하는 이상적 담론상황이다. 이러한 이상적 담론상황이 ‘부당한 의사소통상황’임을 판명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이 이상적 담론상황의 구성 요소로서 주어질 때 가지는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한다. 다음으로,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담론 개념에 토대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이 지시하는 정치(학)적 논의의 수준 -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담론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의 문제 - 과 관련된 부당함에 대해서 지적한다.

첫째,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의 구성 요소가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이라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은 정확히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통시적 의미인 애매성의 직접적인 한계적 경험으로서 주어지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 그 자체가 가지는 ‘내적 역동성(internal dynamics)’을¹⁷⁾ 상호이해

17) 이러한 경험의 내적 운동성을 메를로-퐁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선(先) 구성된 어떤 세계나 논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도 오로지 이들이 본연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땀줄이며, 우리에게 있어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캐묻는다. 다시 말해서 경험이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아닌 (어떤)것(what is not ourselves)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경험을 캐묻는다. 이러한 캐묻음을 통해 우리는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어떤 것을 향해 가는 경험의 운동성을 지각할 수 있다”(Merleau-Ponty 1968, 157-159).

영역 혹은 정치의 영역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킨다.

정치(학)적 맥락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가지는 위상은 정치적인 것의 원형이다.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통시적 의미가 애매성이라고 할 때,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바로 그 애매성의 ‘징후적 현상(a symptomatic phenomenon)’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징후적 현상으로서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ion)의 출처가 된다. 이에 인간의 정치적 행동은 일시적인 욕구나 특정 (이데올로기적)담론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행동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토대하여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재적 탐험(internal exploration)’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치적 행동은 순수하게 사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가지시하는 거대한 실천의 망(綱) 속에서 상호주관적으로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를 현재의 것으로 각색(脚色)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 그 자체가 가지는 내적 역동성을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의 표상체계로서의)담론이 그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앞선 논의에서 이미 제시한 것처럼 담론은 이러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 그 자체가 가지는 내적 역동성을 담아낼 수 없다.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하여 구성되어지는 담론은 소통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을 경직된 형태 즉, 소통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이에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은 정확히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가지는 내적 역동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치의 영역을 왜곡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함은 비단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정치철학에서 보여주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학적 논의가 탈-이데올로기적 담론 개념에 토대하여 진행되고 있다. 찰스 테일러(Ch. Taylor) 역시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토대하여 정치의 영역을 고찰하고 있다.¹⁸⁾ 그리고 포스트-구조주의 언어관에 근거한 포스트-정치이론의 경우에는 아예 담론 구성의 물적 토대로서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둘째,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에 입각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정치(학)적 논의를 결과적으로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담론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라는 관념론적이고 언어학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바로 이러한 점이 조화로우름을 본질적으로 희구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욕구를 소진(消盡)시키고 있다.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에 입각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은 담론의 물적 토대인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가지는 내적 역동성을 배제시킨 채로 담론적 차원에서만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관념론적이다. 그리고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이 화행(speech act) 개념에 근거하여 다양한 담론들 간의 상호침투(inter-penetration)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치학적 논의를 언어학적인 문제로 전환시킨다.¹⁹⁾

18) 찰스 테일러 역시 담론 - 지상선(hypergood) - 생성과 관련하여 (전통으로서의)사회적 가치의 과잉결정 메커니즘이 지시하는 전략적 차원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로, 질적 차별화(qualitative discrimination)를 통한 삶의 서사적 통일성으로서 담론을 기술한다 (Ch. Taylor 1989: 41-63).

19)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론상황과 관련된 언어학적 논쟁의 핵심은 ‘과연 담론적 차원

그러나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의 이러한 경향은 비단 하버마스만의 특이점이 아니다. 현대 정치철학의 현주소를 단지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이 표상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 정치철학의 특징 중 하나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 개념에 근거한 다양한 담론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담론들 간의 상호침투를 통한 강한 합의(strong consensus)를 주장하는 쪽과 다양한 담론들 간의 통약불가능성(immeasurability)을 주장하는 쪽, 그리고 다양한 담론들 간의 약한 합의(weak consensus) 가능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예가 벤하비브(S. Benhabib), 무페, 그리고 영(I. M. Young)과 샌더스(L. M. Sanders)와 찰스 테일러 같은 이들이다.

벤하비브는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하는 담론개념에 근거하여 하버마스 담론간의 상호침투를 위한 상호이해 영역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Benhabib 1996, 67-87).²⁰⁾ 하지만 벤하비브 역시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담론개념에 근거함으로써 정치(학)적 논의를 궁극적으로 다양한 담론들 간의 일치 내지 불일치의 문제로 귀결시킬 수밖에 없다.

포스트-구조주의에 근거한 무페는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의 강한 합의 지향 - 다양한 담론들 간의 상호 침투 - 을 비판한다(Mouffe 2000, 114-118). 하지만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무페의 비판 역시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적 차원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관념론적 성격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버마스 담론윤리학에 대한 무페의 비판이 궁극적으로 다양한 담론들 간

에서 화행 개념의 적용이 적합한가?’에 모아진다. 물론 이러한 논쟁이 담론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적용 여부가 다르게 제시되었지만, 담론적 차원에서 화행 개념의 적용 즉, 다양한 담론들이 전제하는 ‘배경 언어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과연 언어학적으로 타당한가? 라는 물음으로 압축된다.

20) 이러한 벤하비브의 입장은 드워킨(R. Dworkin)의 논문 제목인 “Objectivity and Truth: You'd Better Believe it”가 의미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다.

의 일치 내지 불일치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음으로 언급될 영과 샌더스, 그리고 찰스 테일러의 논의는 하버마스 담론윤리학과 포스트-정치이론 간에 전개된 논쟁에 대해서 전자는 대안적이며, 후자는 실질적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 역시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담론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라는 문제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영과 샌더스 같은 이들은 담론들 간의 논증이 가지는 한계점, 다시 말해서 담론들 간의 화해 불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다양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또 다른 의사소통 형식(이야기하기(narrative), 고백(testimony))을 대안적 보충물로서 제안한다(Young 1996, 129; Sanders 1997, 370-371). 그러나 이들(영과 샌더스)의 접근은 여전히 상호이해 영역을 담론적 차원에서만 다룸으로써 이들이 제시한 또 다른 의사소통 방식이 가지는 ‘독특함(unicqueness)’²¹⁾을 결과적으로 소거시킨다. 필자는 담론적 차원과 담론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의 상호 공존(co-existence)은 결과적으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담론적으로 재해석 내지 재구성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²²⁾

21) 영의 ‘이야기 방식’은 정확히 담론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곧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의 의사소통 매체가 논증의 방식이 아닌 이야기 방식이 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22) 푸코의 권력과 지식 테제는 담론이 어떻게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 가지는 내적 역동성을 ‘포획’(swallow)시키는 지를 탁월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 푸코는 그의 「성의 역사 1」에서 그의 권력과 지식테제에 근거하여, 소원과 욕망의 구조를 형태 짓고, 담론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 소원과 욕망을 지배체제로 끌어들이는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즉, 푸코는 이 책에서 현대적 성 담론을 중세시대의 고백양식을 학문적 담론의 절차로 전이시킨 결과물로서 규정한다. 그리고 푸코는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으로서의)성 담론은 네 가지 전략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 신체의 히스테리화, 미성년자 성의 교유화, 종족번식본능의 사회화, 그리고 변태적인 욕구의 정신이상화(Foucault 1990, 18-105).

찰스 테일러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담론들 간의 강한 동질성이나 강한 이질성을 폐기한다. 찰스 테일러가 하버마스나 프랑스의 신니이체주의자들에게 가한 비판은 이를 명확히 한다. 배경 언어의 동질성에 대한 자명성 문제나 모든 것을 권력과 대항권력으로 틀 속에서 재해석하는 일련의 시도 등에 대해서 보여준 찰스 테일러의 비판적 입장은 다양한 담론들 간의 약한 합의를 지향한다(Taylor 1994, 70-72). 이러한 맥락에서 분명 찰스 테일러의 입장은 선형적 도덕적 틀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격을 가진다(Taylor 1989, 72-73). 하지만 여전히 찰스 테일러의 입장은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 주어지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토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관념론적 성격을 가진다.

4. 결 론

실존 철학적 입장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하버마스 담론 윤리학에 대한 양가성의 고찰은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상호이해 영역의 내적 토대로서 주어지는 하버마스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상호이해 영역에 대한 무폐의 접근과 칸트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점에 대한 합당한 극복으로서 제시된다. 둘째, 탈-이데올로기적이고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하버마스의 담론개념이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개념에 근거한 의사소통 상황이 부당한 의사소통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합당한 조건이 직접성임과 동시에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요소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인 삶임을 제시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직접성에 대한 논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차원에서 담론 생성에 대한 고찰은 담론이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담론은 성공지향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둘째, 담론이 파편화된 전략적 입장에 토대한다는 점에서, 담론은 의미론적 이원론과 독백주의를 형식적 특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다양한 담론들 간의 소통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도한 재구성의 결과물로서의)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은 정치적 영역을 왜곡시킨다. 셋째,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적 담론은 정치공동체 내에서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재구성 내지 재해석한다.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에 입각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하는 상호이해 영역 구성에 대한 본 논문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정치(학)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는 특정한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가, 아니면 인간의 본원적 행위 양식인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투영(投影)된 삶의 침전물인가? 이러한 질문에 직면하여, 하버마스의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는 민주주의가 상호이해 지향적 행위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투영된 삶 그 자체임을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란 특정한 공동체에서 보여주는 특정한 정치적 삶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통시적 차원에서 인간 행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성 내지 연대로서의)상호이해 지향적 행위 그 자체의 ‘실존적 침전물(a existential sediment)’이다.

둘째, 상호성 내지 연대에 토대한 상호이해 영역의 구성요소가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에 토대해야함은 민주적 정당성 확립이 요구하는

‘실용적 타당성(pragmatic validity)’이 관념론적 차원이 아닌 유물론적 차원에서 산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실용적 타당성을 설득력 없는 탈-이데올로기적 담론개념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제 시도들은 정확히 관념론적 차원을 지향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재생산 운동을 관념적 차원의 흐름으로만 설명할 뿐이다. 하버마스에게 있어 규범의 재생산은 동질성에 근거한 필연적 수렴(convergence)으로, 무페에게 있어 규범의 재생산은 이질성에 근거한 우연적 수렴으로 제시될 뿐이다.

이에 민주적 정당성 확립이 요구하는 실용적 타당성을 유물론적 차원에서 산출함은 표층적 담론들의 물적 토대로서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원형으로서 지시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 그 자체가 가지는 내적의 역동성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이라는 것이 파편화된 채로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weak)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이해 영역 구성을 위한 합당한 두 번째 조건은 ‘직접성에 토대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²³⁾일 것이다. 직접성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상호성 내지 연대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직접성에 토대한 상호인정이라는 두 번째 조건은 파편화되고 연약한 상태로 존재하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경험적 삶을 상호이해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건이다.

23) 찰스 테일러의 상호인정(Taylor 1994, 25-85)이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에 토대한 개념이라면, 본 논문의 직접성에 토대한 상호인정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에 토대한 개념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담론 개념 그 자체에 있다.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적 담론이나, 아니면 탈-이데올로기적 담론이나.

참고문헌

- Zima, P. V. 허창운 역. 1996. 『이데올로기와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ant, I. 백종현 역. 2005. 『윤리형이상학 정초』. 서울: 아카넷.
- Kant, I. 백종현 역. 2002. 『실천이성 비판』. 서울: 아카넷
- Benhabib, S. 1996. "Toward a Deliberative Model of Democratic Legitimacy." in Benhabib, S. (eds.).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P.
- Dworkin, R. 1996. "Objectivity and Truth: You'd Better Believe it."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5(2).
- Foucault, M. 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struction*. London: Penguin Books.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Paris: Gallimard.
- Gauthier, D. 1986. *Morals by Agreement*. Oxford: Clarendon Press.
- Habermas, J. 1998. *The Inclusion of The Others*. Cambridge: MIT Press.
- Habermas, J.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ontributions to a Discourse Theory of Law and Democracy*. Cambridge: MIT Press.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2. Boston: Beacon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1. Boston: Beacon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Chicago UP.
- Merleau-Ponty, M. 1968.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Evanston: Northwestern UP.
- Merleau-Ponty, M. 1962.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 Mouffe, C. 2000. "For an agonistic model of democracy." in Noel O'sullivan (ed.). *Political theory in Transition*. London: Verso.

- Mouffe, C. 1988. "Hegemony and new political subject." in Nelson, C & Grossberg, L. (eds.). *Mar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lan.
- Laclau, E & Mouffe, C. 2001.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Rational Democratic Politics*. New York: verso.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P.
- Sanders, L. M. 1997. "Against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25(3).
- Taylor, Ch. 1994.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Gutmann, A. (ed.).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P.
- Taylor, Ch. 1989.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Cambridge: Harvard UP.
- Young, I. M. 1996. "Communication and the Other." in Benhabib, S. (ed.).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ceton: Princeton UP.
- Wittgenstein, L. 1969. *On Certainty*. Oxford: Basil Blackwell.